

## 광주시민 68.3% “실내 마스크 해제 찬성”

광주시, 광주 온(on) 온라인 설문조사  
 81.7% “해제돼도 당분간 마스크 착용”

광주시민 10명 중 7명 가량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10명 중 8명 이상은 해제되더라도 당분간은 마스크를 착용하겠다고 밝혔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닷새 동안 시민 정책참여단 2만4329명을 대상으로 시민소통 플랫폼 ‘광주 온(on)’을 통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정부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에 대한 시민 의식과 앞으로 마스크 착용 여부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진행됐다.

조사 결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권고로 변경하는 정부 계획에 대해 ‘찬성한다’ 40.3%(1253명), ‘매우 찬성한다’ 28.0%(870명)로, 68.3%가 실내 마스크 해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하는 편이다’와 ‘매우 반대한다’는 각각 21.2%(659명)와 7.5%(234명)로 합쳐서 28.7%에 그쳤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하겠느냐’는 질문에는 81.7%가 ‘당분간은 착용하겠다’고 답했다. 응답자 중 44.1%(1370명)는 ‘되도록 착용하겠다’고 했고, 14.8%(460명)는 ‘무조건 착용하겠다’, 22.9%(711명)는 ‘당분간은 착용하지만, 점차 착용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지면 착용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당장 착용하지 않겠다’는 시민도 18.3%(569명)에 달했다.

‘실내 마스크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느냐’는 물음에는 48.6%(1512명)가 ‘매우

효과적’, 28.3%(880명)는 ‘다소 효과가 있다’고 답해 76.9%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별로 효과가 없다’거나 ‘전혀 효과가 없다’는 답변은 각각 9.3%(289명)와 4.2%(132명)에 달했다.

의료기관·사회복지시설·대중교통 등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유지에 대해서는 83.8%(2607명)가 찬성했다.

허경 광주시 시민소통과장은 “광주시정 주요 이슈에 대해 광주 온(on) 온라인 설문해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승호기자

## ‘설 차례상 비용’ 진짜 얼마 들까…발표마다 제각각, 왜?

설 명절을 앞두고 다양한 기관에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설 차례상 비용 분석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조사 기관마다 다른 결과를 내놓고 있어 이런 차이가 생기는 이유에 궁금증이 생기고 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한국물가정보 등은 최근 설 차례상 비용 관련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4개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전통시장에서 차례상을 준비했을 경우 드는 비용은 22만8251원에서 27만4431원까지 차이를 보였다. 대형마트의 경우 27만9326원에서 35만9740원 사이로 조사됐다.

전통시장에서 드는 비용이 대형마트보다 저렴하다는 결과는 4개 기관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지만, 저렴한 정도는 17.9%에서 29.3%까지 벌어졌다. 이런 차이는 왜 발생할 걸까.

우선 조사 대상에 차이가 있다. 소진공과 aT는 전국 단위의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한국물가정보는 서울·수도권의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를 표본으로 뒀다.

차례상의 기준에도 차이가 있다. 소진공과 한국물가정보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차례상을 계산했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6~7인 가족을 기준으로 했다. aT는 인원수가 아닌 차례상 하나를 차릴 때 올라가는 제품용품 품목을 따져 비교했다.

소진공 빅데이터실 오윤배 실장은 “1차 식품이(수도권 보다)지방 위주로 생산되고 유통되는 측면이 있다보니 지역간 간극이 있다”며 “전통시장은 지역에서 상승폭이 낮고 수도권에서는 높다. 반대로 대형마트는 수도권에서 하락폭이 낮고 지역에서는 높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세부 품목별 가격 동향은 전체 조사에서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올해 제품용품 가운데 과일 등 농산물의 가격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나타났다. 반면 원재료 수입단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밀가루, 약과, 청주 등 가공식품의 가격은 올랐다.

한국물가정보 이동훈 선임연구원은 “기관마다 조사 가격은 달라도(차례상 비용) 전체 가격은 소폭 올랐으며 대형마트 보다 전통시장이 더 저렴하다는 흐름은 동일하다”며 “농산물은 전년대비 내렸지만 1차, 2차 가공식품이 오르면서 물가 상승을 이끌었다”고 말했다.

최이슬기자

## 2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신호등’ 본격 도입…3개월 계도기간

경찰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적색 신호시 정지 의무 명확 규정

사고 다발 교차로 등에서는 신호를 받아야 우회전이 가능하도록 한 우회전 신호등이 전국에서 본격 도입된다.

경찰청은 교차로에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고, 적색 신호시 정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

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선 신호등의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이 가능하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대



광주 보육 대체교사 고용 연장 농성

‘광주 보육 대체 교사 고용보장’ 농성 닷새째인 17일 오전 광주 사회서비스원 소속 보육 대체 교사들이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사 1층 농성장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

김재환기자

건강한 밥상의 시작

## 청정엘로우시티 장성 먹거리